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GTD 212 여자기(6/7~10, Rector: 이명화 권사)
 - 그룹장 모임(6/11)
 - Father's Day(6/21)
 - 목자부흥의 밤(6/30)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6. 7

6월 첫째 주: 성경의 첫 장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 (창세기 1:1)

■ Welcome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서론

역사적으로 사람은 대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여 물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관, 세계관을 정립해 나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관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오고 그것이 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배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하게 된다.

그 일에 중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1세기 많은 기독교인들은 1장의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은 1장의 말씀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지않고 단지 설화나 비유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로 살 때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이론을 진리로 배웠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역사를 보면 창조주에 대한 불신이 19세기부터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약화를 가져오고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가 되게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믿지 않고 성경의 권위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진리를 점검하고자 한다.

■ 관찰 질문: 성경의 첫 장이 현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해답 1.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준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관한 기록은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임을 말해준다. ‘창조’(히: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그것이 지어진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에게는 세상 만물이, 인간조차 하나님이란 존재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에서 **지구 기원에 관한 빅뱅이론**을 가르친다. 이 이론은 약 138억년 전에 세상 만물이 큰 폭발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여기서 빛이 나오고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팽창되어 오늘의 우주가 이루어졌고 태양에서 45억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고 한다. 완전히 창세기 1장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말이다.

또한 18세기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된 뒤, 생명체의 출현이 모든 조그만 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된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DNA 연구 등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더 이상 이것을 신봉하지 않게 되었다. 만물은 빅뱅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론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만물, 우주, 별, 지구,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 적용 질문 1

1)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 분위기인가요?

해답 2.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1절의 ‘하나님’의 원어인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창조하다’인 ‘바라’는 단수형 동사이다. 복수형 명사 뒤에 복수형 동사가 아니라, 단수형 동사가 쓰여졌다. 이 말은 복수의 하나님을 단수형으로 취급하여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2절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에 나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요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6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로 말씀하신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장의 창조 사역에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 적용 질문 2

1)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운행하셨듯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3. 창세기 1장은 내가 누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1) 인간은 누구인가? - 인간의 정체성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있고 언어가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자로 만드셨다.

2)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인간의 사명

(1)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기준을 주셨다.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는 먹지말라**’ 하나님은 인간을 로보트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2)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 퍼져나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 적용 질문 3

1)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그 사명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느끼나요?

해답 4.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의 조그만 행성에 태어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시 8:3~4)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6일간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 세상은 우연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만물 위에 그가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우주도 인간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된다.

또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이제 나의 가치는 바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 적용 질문 4

1)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의 부분은 어디인가요?